

서울大學校의 教養教育

姜 信 澤

(서울大 行政大學院)

1. 序 論

이 글은 1980 년대에 들어와서 서울대가 교양 과목의 일부를 개편·시행했던 事例에 관한 보고이다. 그러나 이 글은 '成功事例' 또는 모범 사례 발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도되었던 교양 과목 개편의 내용과 시행상의 애로 등을 검토하고 하나의 改善策을 찾아 보려는 것이다.

筆者는 교육 일반이나 教養教育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學事行政 전반에 관한 專政者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되는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論議를 전개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따라서 이 글은 교양교육 개편의 실무 행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하나의 事例報告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學界에서는 教養教育의 理念과 目的이라든지 서양의 大學史的 背景에서 본 교양교육의 성격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으며, 우리나라 大學의 교양교육의

운영 실태와 그 改善方案 등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논의와 연구는 모두 다 妥當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와 같은 논의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울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겠다."

필자는 本稿에서 서울대가 1975년 이래 大學院中心大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몇 가지 措置를 개관하고 이러한 制度變化에서 나타나는 基礎課程의 성격을 밝힌 다음 기초 과정에서 제공하는 教養科目 중 일부를 主題中心으로 改編한 경위와 내용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에는 新規 教養科目을 개설·강의했던 경험에 관해서 담당 교수, 조교 및 수강생의 반응과 行政支援上的 어려움을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으로서 基礎課程의 教育組織을 개편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大學行政에 있어서 아직 잘 정립되지 않은 문제는 教育 프로그램과 教育組織의 구분 및 상호간의 관계인 것 같다. 즉 한편으로는 교육 프로그램(教科課程)만 잘 짜여지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으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大學教育, 제22호(1986.7)에서는 '教養教育의 理念과 現況', 그리고 '教養教育體制의 運營方向'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2) 本稿는 서울大學校, 學士課程의 基礎 및 教養教科課程 改善에 관한 研究(1985.12)를 줄여서 改稿한 것이다.

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과 교수를 科單位 또는 大學單位로 편성만 해 놓으면 거기서 모든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教育 프로그램과 教育組織은 구별되어야 하되 有機的으로 連繫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大學院中心大學 基礎課程의 性格

1) 大學院中心大學으로의 轉換 努力

오늘날의 大學이 지금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발전해 오기까지는 각국의 政治·經濟·社會·文化的 배경과 歷史가 작용하여 그 나라의 傳統과 慣行을 형성해 왔는데 우리는 과거의 知性史나 知識人階層으로부터 단절된 채 막연히 美國型大學校의 모형을 받아들여 왔다.

이렇듯 우리나라 대학이 미국형 대학의 모형을 따른다고 하지만, 최근까지 실제로 學事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2次 大戰前의 日本의 대학에 관한 잔재가 남아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戰前 日本의 대학 모형은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 동안 일본도 변하고 독일도 변했지만 그러한 잔재가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大學運營에 영향을 미쳤던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戰前의 잔재와 美國式 모형의 어색한 受容이 만들어 내고 있는 갖가지 變形은 이루다 헤아리기 어렵다. 예를 들어 美國의 Professional School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學士課程에 압축시키고 있는가 하면 學者와 研究者의 양성이 그 주목적이 아닌 분야에서 博士學位(Ph.D.)의 수요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대는 일찍부터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苦心해 왔는데 1970년대초부터는 본격적으로 大學院中心大學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1975년의 綜合化와 더불어 몇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大學院을 開放型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사 과정에서의 專攻에 상관 없이 학생들에게 대학원의 학과를 선택·지망할 수 있게 하였고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학생수를 증원하되 總定員制로 운영

하고 있다. 教授 및 研究要員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시도해 보았고 大學院重點育成 研究費도 지원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本稿와 더 관련이 깊은 것은 교과 과정의 통합·조정이다.

1975년의 綜合化와 더불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종전에 각 單科大學別로 편성·운영해 오던 教科課程을 통합·조정하는 일이다. 이러한 통합에 의하여 類似 또는 隣接學科間에 중복 설치되어 있던 교과목을 통합하고 學問系列別로 체계화하였다. 1981년부터는 基礎, 專攻 및 大學院課程의 모든 교과목이 하나의 책자에 수록됨으로써 縱的·橫的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다. 이러한 統合教科課程을 편성하기 시작한 1978년말과 1979년초의 지침에서는 서울대 각 학과의 교과 과정을 博士→碩士→學士課程 전공 과목의 순으로 작업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大學院中心大學의 教科體系는 學問中心이어야 하고 그러자면 博士 또는 碩士課程을 기본으로 하는 학문의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원을 학사 과정의 附隨物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사상의 조치였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나 실현되었는지는 판단할 길이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견해가 學內 교수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다면 專攻課程뿐만 아니라 基礎課程의 교과도 대학원 교육과 연계성을 맺도록 하기가 훨씬 쉬우리라는 것이다.

2) 基礎課程의 性格

1975년의 綜合化가 가져온 教育組織의 변화 중의 하나는 같은 학문을 전공하는 모든 교수는 單一 學科에 통합되고 이러한 학과의 교수가 基礎課程, 專攻課程 및 大學院課程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學科를 중심으로 하여 學事運營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셈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각 학과의 주요 관심이 아직도 學士課程의 전공 과정인 2,3,4학년생에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학원사태와 관련한 學生指導體系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촉진되기도 했지만, 대학원 과정의 경우에는 學科와 그에 소속된 學生은 있으되 대학원 교육만을 담당하는 教授陣이 따로 없이 각 單科大學의 학과가 해당

분야 대학원생의 교육과 지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주로 1학년 과정을 말하는 基礎課程의 경우에는 학생은 계열이나 학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운영 주체는 敎務處이고 교수진은 따로 없기 때문에 결국 교수진과 학생의 所屬學科 및 그 敎育과 指導 그리고 그 운영 주체가 일치하는 과정은 2, 3, 4학년의 전공 과정뿐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綜合化 이전에는 기초 과정의 성격을 가진 교육을 단과 대학별로 실시한 경우도 있고 ‘敎養課程部’라고 하는 하나의 독자적 敎育組織을 분리시켜서 학생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고 敎養課程部長, 敎授陣 및 학사 행정 지원 조직을 따로 두어 운영한 경우도 있다. 이때의 교수진은 國語·英語·數學 등 소위 도구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뿐만 아니라 概論科目을 담당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었고 교양과정부가 일종의 豫科課程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화와 더불어 교양과정부도 폐지되었는데 이때부터 專攻確定 이전의 교육을 기초 과정 교육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학사 과정의 교육은 그 성결과 소요 교육 연한에 따라 4년 또는 6년으로 하며, 학과의 專攻確定 時期를 대별하여 人文·社會系(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는 2학년말, 自然系(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약학대학, 가정대학)는 1학년말로 한다. 단, 의학, 치의학, 수의학, 음악, 미술, 체육 영역 및 간호학과와 전공 확정은 1학년초로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었다.⁴⁾

이와 같이 모든 단과 대학이 교과 과정 운영에 있어서 綜合運營原則에 따르게 됨으로써 “基礎課程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과정을 3개의 基本學問大學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⁵⁾고 하여 3개의 기본 학문 대학에서 종전의 文理科大學 또는 敎養課程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고 했으며 지금까지도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⁶⁾

이렇듯 基礎課程에서부터 단과 대학간의 橫的인 연계와 學問系列上的 縱的인 연계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은 총 33학점의 基礎共通科目을 필수로 택해야 된다. 이러한 기초 필수는 人文, 社會, 自然系列에서 각 6학점, 語學 9학점, 기타 6학점으로 한다. 이렇게 배정된 기초 필수 학점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의 절대적인 자유에 속한다.

대학은 知性的인 샘터라는 뜻에서 이른바 기초 교양 교육이 근년에 강조되어 온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知性的인 발달한 創意力을 북돋우는 敎養敎育을 철저하게 틀에 박힌 敎科課程으로 고정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임에 틀림없다. 또한 基礎敎養敎育은 고등학교 교육의 단순한 연장이나 學生들의 취미를 강타하는 교양 강좌일 수도 없다. 대학의 基礎敎養敎育은 체계화한 학문의 기초를 소개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자율적인 學問에 대한 方向 감각과 기본 능력은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된다. 따라서 基本學問大學은 상당수의 基礎科目을 마련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選擇의 여지를 갖게 하여야 한다. 또한 보다 알찬 기초 과목을 제공하기 위한 學科間의 경쟁은 學問的인 發展의 동기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구상은 綜合化와 더불어 채택되었고 實驗大學事業을 통하여 더욱 具體化되는 듯 하였으나 실험대학 사업의 副作用과 卒業定員制下的 점수 따기 경쟁은 ‘폭 넓은 교양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專攻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기초 과정 본래의 趣旨와 운영 방식을 퇴색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學院中心大學에서는 기초 과정에서부터 學問系列間의 橫的 및 縱的인 연계를 맺어 주어야 한다는 방침과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3) 保健, 行政, 環境 등 소위 專門大學院에는 專任敎授가 있음.

4)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綜合化 敎育機構 및 運營計劃(案)(1973.9), p.7.

5) 上揭 計劃案, p.16.

6) 人文大學, 社會科學大學, 自然科學大學을 基本學問大學이라고 부른다.

3. 基礎敎養敎育 改善을 위한 敎科目 開發

1) 沿革과 背景

그 동안 서울大 기초 과정에서 제공하는 基礎 및 敎養敎科課程에 대하여 크게 나누어 세 갈래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첫째는 連繫性 문제다. 이 연계성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高等學校 敎育 과정과의 연계성 문제로서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에서 가르치고 있는 敎養敎科目이 고등학교 敎育 과정의 反復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비판이다. 여기서 '反復'이라는 의미는 교과목의 명칭이 國語, 英語, 數學 등으로 같고 교과목의 내용과 수준이 비슷한 경우가 있으며 학습 방법이 注入式·暗記式으로 비슷하고 學業評價方法이 객관식 시험 위주로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의 專攻領域別 학문의 연계성 문제로서 대학의 敎養敎科目이 과연 대학의 학문을 위한 敎양 있는 知性人으로서의 基礎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학의 基礎課程이라는 과정이 高校敎育과 大學의 專攻學問의 中間段階에서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바로 대학의 성격 규명파도 연결되는 문제다.

둘째는 기초 과정의 對象問題이다. 즉 누가 基礎 및 敎養敎科目의 수강 대상인가 하는 문제다. 흔히 대학의 1학년생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 교과목 중에는 1학년생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 1학년 재학중에만 敎양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사실 대학의 敎養敎科 과정을 편성함에 있어서 오늘날 권장되고 있는 것은 전교양 교과목을 一學年生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사다리꼴'이 아니고, 1학년생뿐만 아니라 2, 3학년생에게도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피라미트'인 것이다.

그리고 大學의 1학년생은 모두 同質의이며 같은 내용의 敎育을 받아야 하는가도 분명하게 해명된 바 없다. 흔히 말하기를 대학의 基礎 및 敎養敎育은 敎양 있는 大學人으로서의 敎양을 쌓고 專攻을 탐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전공이 결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專攻探索은 소속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이루

어질 것이며 敎양 있는 대학인을 기른다는 과목들은 國語, 外國語, 數學, 概論, 哲學 등인데 이러한 과목들이 어떤 이유로 敎養人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만일 이러한 과목들이 敎양인을 만드는 것이라면 人文·自然·社會系列의 학생들은 그들의 전공 과목이 위에서 말하는 그러한 과목들이므로 敎양 과정이 따로 필요치 않다는 말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大의 기초 및 敎양 교과 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세번째의 큰 문제는 이러한 課程을 운영하는 체제의 적합성과 효과성의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운영 체제의 구성 요소는 敎務處, 單科大學, 學科 및 敎授陣 등이다. 즉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의 체제가 고등학교와도 다르고 專攻課程과도 다른 하나의 독자적인 敎育 과정으로서의 基礎 및 敎養敎科課程을 운영해 나가기에 적합하며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다. 서울大의 경우, 불행하게도 현재의 運營體制는 미흡한 것 같다.

이상과 같은 背景 밑에서 1979년에 교무처에서 基礎課程의 敎양 교과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1981년에는 일부 교수들에 의하여 「大學 基礎課程의 敎養敎育 改善을 위한 研究」를 통하여 敎양 과목을 몇 개의 廣域으로 묶어서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으며, 1981년말에는 「大學 基礎課程 敎養敎育 改善을 위한 敎科目 開發 研究報告書」에서 5개의 과목을 개발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에 관하여 文敎部의 적극적인 찬동을 얻어 1982학년도부터 실험적으로 講義敎科目으로 개설하였다. 1982년말에는 「大學 敎養課程改編研究」를 통하여 '82학년도 1학기에 실험적으로 개설했던 5개 敎양 과목의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한편 한국사 분야에서 2개의 新敎科目을 개발했다. 이어서 1983년에 「大學院中心大學의 敎養敎育 改善方案 研究」에서 3개의 과목을 개발하였고 이데올로기 批判敎育과 관련해서 2개의 과목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 때의 계획은 年次的으로 약 40여 종의 교과목을 개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었는데 이와 같이 科目開發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單科大學 敎授뿐만 아니라 심

지어는 교과과정 위원회의委员들 사이에서도 다소의 반발이 생겼다. 이에 따라 1983년에는 또 다시 基礎課程의 운영 체제 개선과 教科內容의 改善研究를 병행시키고자 했는데 뚜렷한 案이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개발된 교과목들은 그때 그때 講義科目으로 개설되어 나갔는데 종전의 교양 교과 체제가 완전히 개편된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1985年版 통합 교과 과정표에는 신규 교양 과목을 기존의 교양 과목과 並存시키고 일부 교과목의 경우는 相互對替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든간에 교양 과목의 개편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엉거주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背景과 沿革를 염두에 두면서 그동안 이루어진 教養教科目的 開發內容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2) 教養教科目 開發內容

교양 과목의 개발은 어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혁 의지를 가진 몇몇 教授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이들 人文·社會·自然系列 교수들의 견해에 의하면 教養教育이 “전공 교육의 기초 또는 教育받은 일반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素養과 資質을 기르기 위한 教育”이라는 추상적 수준에서 合意가 있어 왔고 실제적인 수준에서는 교양 교육이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道具의인 성격의 교과목(국어와 외국어), 國民的 資質의 함양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강조하는 교과목(국민윤리와 한국사, 체육과 교련), 그리고 각 학문 분야의 ‘概論科目’들 중의 몇 가지를 이수하는 과정”으로 合意가 형성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일종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양 과목 중 소위 ‘道具科目’이나 ‘政策科目’보다 核心部에 있는 ‘概論科目’들이 ‘專攻의 基礎’와 ‘一般 教養人의 素養과 資質’을 키운다는 교양 과목의

두 가지 趣旨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教養教育의 성격에 대한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合意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教科目的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실현성 있고 妥當性 있는 교과목들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과 같은 주장에 따라 1980년 당시의 개론 과목들은 ‘專攻科目’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새로운 核心科目들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들 교양 과목들은 종래와 같이 人文學, 社會科學, 自然科學 등의 학문 영역별로 조직할 것이 아니라 몇 개의 ‘關心領域’으로 조직해야 하며 다소간 混雜을 감안하여 教養教育의 關心領域을 다음과 같은 8가지로 할 것을 제안했다.

영역 I : 韓國史와 國民倫理

영역 II : 國語와 作文

영역 III : 體育과 教練

영역 IV : 外國語와 外國文化

영역 V : 文學과 藝術

영역 VI : 歷史와 社會

영역 VII : 分析的 思考

영역 VIII : 科學

이와 같은 改善案의 領域別 특징이나 履修形態 그리고 例示의인 教科目概要 등이 1981년에 다루어졌는데 本稿에서는 생략하겠다.⁷⁾

위와 같은 提案內容은 서울大 教務處에 의하여 수용되고, 學內 일부 교수들의 적극적인 呼應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文敎部에서도 政策事業으로서 대학의 교양교육을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典型으로 삼게 되었다.

1981년말에는 교양 과목 중 ‘核心領域’의 일부 과목들을 개발한 報告書가 제출되었다.⁸⁾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교양 과정의 교과목 종류를 ‘政策科目群’, ‘道具科目群’ 및 ‘概論科目群’으로 大別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교양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시키고 있다.

① 教養教育의 1차적인 目標은 성인 초기단계에 들어서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참다운 ‘교육받은 사람’으로 성숙하게 도와 주는 것이다.

7) 부록 참조.

8) 金鍾云 외 7人, 大學 基礎課程 教養教育 改善을 위한 教科目 開發 研究報告書(1次年度)(1981.12).

② ‘교육받은 사람’ 또는 ‘교양인’이란 인격적으로 완숙하며, 歷史觀과 國民意識이 뚜렷하고 宇宙와 世界를 이해할 줄 알며, 批判精神이 투철하고 자신의 意思를 명쾌하게 전달할 줄 알며, 장차 指導者로서의 소양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③ 敎養教育의 2차적인 목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발전적으로 連繫시키며, 학사 과정의 專攻教育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④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발전적 연계를 위해서는 中等教育의 反復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學問의 幅과 깊이를 일깨워 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⑤ 大學에서의 전공 교육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敎養教育은 단순한 入門科目의 나열이나 道具科目의 이수에 그치지 않고, 한층 더 높은 도구과목의 습득과 더불어 專攻科目의 여러 分科에 대한 理論을 복돋우는 深層教育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교양교육의 改善方向에 있어서는 위에서 규정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政策科目과 道具科目은 물론 概論科目의 일부 철계 또는 대륙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부 과목의 試驗에 의한 免除, 기타 과목의 深層의 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개론이나 입문 과목은 전부 專攻教育의 기초 과목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새로운 ‘敎養教育 核心 敎科課程’을 개발하여 이를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잠정적으로 일부 전공 개론 과목들도 교양 과목으로 인정하는 병행 제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⁹⁾

’81년 4월의 報告書에서는 교양 과목의 ‘關心領域’을 8가지로 분류·제안하였는데, ’81년 12월의 보고서에서는 그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도 일부 영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은 5개 영역을 ‘敎養教育 核心 敎科課程’으로 규정했다. 이들 영역은 多學問的인 성격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 ① 外國語와 外國文化
- ② 文學과 藝術

③ 歷史와 社會

④ 分析的·批判的 思考

⑤ 科學과 人間生活

上記한 개선 방향에 따른 대학 敎養教育의 본질적인 성격 전환을 위한 改革은 ‘단기적으로 조급하게’ 실시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적인 研究開發을 촉진하면서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政策的 후원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施行 初年度에는 5개 핵심 영역에서 각각 최소한 1개 과목씩을 개설하여 現行 제도에 단순 첨가하는 형식으로 이를 실험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實驗의 開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목들을 개발했다.

영역 I : 外國語와 外國文化(I-英語圈)

강의제목 <現代 美國의 社會와 文化>

영역 II : 文學과 藝術

강의제목 <韓國 近代文學의 理解>

영역 III : 歷史와 社會

강의제목 <戰爭과 平和>

영역 IV : 分析的·批判的 思考

강의제목 <現代의 哲學의 理解>

영역 V : 科學과 人間生活

강의제목 <現代科學의 構造>

위에서 제시한 새로 개발된 교과목의 특징은 既存 專攻學科의 내용 분류 방식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어떤 主題에 관하여 ‘多學問的’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이며 각 교과목마다 學習目標, 學習方法과 評價, 週別 講義計劃과 세부적인 討議主題와 概念 그리고 週別 참고 문헌들을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수강생들에게 豫習과 討議準備에 필요한 충분한 指針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5개 교과목은 ’82년도 제1학기부터 개설되었는데 교과목마다 1인의 강의 조교가 배정되어 敎授의 강의 후에 토의를 이끌어 가도록 했고 토의에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미리 配布해 주었다.

1982년 12월에는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國史科目이 專門史科目으로 개발되었다. 국사 과

9) 後述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核心敎科科目으로 개발된 것들이 기존 概論科目들 사이에 추가되었다.

목은 일종의 政策科目이며 서울大 교양 과목 개선을 위한 敎科科目 개발 계획에 따를 때 ‘敎養教育 核心 敎科課程’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런데 1982 년도에 文敎部의 교양교육 개선 사업의 방향에 따른 권고를 받아 이러한 교과목을 개발했는데 이와 같은 開發事例는 개론 과목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主題中心’의 교과목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982 년에 國史科目을 專門史科目으로 개발하는데 참여한 교수들의 見解에 의하면, 국사 과목이 정책 과목의 하나로서 대학 교양 과정의 必須科目으로 1976 년에 채택된 이래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理解를 높이고 민족적 主體意識을 함양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施行方法上의 문제점으로서 敎科科目名이 初·中·高校의 ‘國史’와 語意上 동일하여 신선미가 없는 데다가 표준적인 敎材가 없고 敎授 確保가 곤란하며, 政治史에 치중하는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육과는 달리 대학에서의 ‘韓國史’는 文化史에 대해 중점이 놓여져야 하므로 韓國史 專攻者만이 ‘韓國史’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興味와 意欲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의 내용과는 달리 文化史 내지는 思想史·社會史 중심의 특수 전문적인 강좌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特殊專門史 과목은 ‘韓國史’보다는 범위가 좁고 전문적이어야 하지만, 전공 과정에서 다루는 과목처럼 지나치게 특수 전문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科目으로 바람직한 강좌 제목의 실례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韓國人의 美意識〉, 〈韓民族과 科學技術〉, 〈韓國 近代 民族運動史〉, 〈韓國人의 歷史意識〉, 〈古代의 韓日關係〉, 〈韓國의 民族主義〉, 〈植民史觀批判〉, 〈實學이란 무엇인가?〉, 〈韓國人의 宗教〉, 〈韓國人의 共同體意識〉, 〈韓國의 傳統音樂〉

이상과 같은 國史科目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의 검토 및 개선 방향의 제시에 따라 〈韓國人의 歷史意識〉과 〈近代 韓國의 民族主義〉라는 두 개의 교과목이 새로운 實驗 敎養科目으로 개발·

개설되었다.

그 후로도 〈經濟的 自由와 平等〉, 〈科學과 環境〉, 〈女性和 社會〉, 〈第3世界와 韓國〉, 〈現代社會主義의 分析〉, 〈英美成長期의 文學〉 등이 개발되어 〈第3世界와 韓國〉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이 개선되고 〈美術의 理解〉와 〈音樂의 理解〉가 추가로 개설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4 개의 新敎養科目이 추가된 셈이다.

4. 新規 敎養科目의 實驗的 開發 評價

1) 實驗敎養科目의 位置

(1) 5개 敎養科目의 開設 評價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동안 신규로 개설된 敎養科目數는 14 개인데, 그 중에서 최초로 개설했던 5 개의 강좌에 대하여는 담당 교수와 조교 및 학생들의 反應을 조사하여 평가한 일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것을 소개하기로 한다.

1982 년 제 1 학기부터 5 개의 新規 敎養科目을 ‘실험적’으로 개설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주된 취지는 소수의 과목에 대한 實驗을 통하여 이와 같은 성격의 교양 과목의 長·短點과 問題點 및 앞으로 고려하고 개선해야 할 점 등을 탐색함으로써 敎養教育 改善을 위한 기초 정보를 얻고자 하는 데 있었다.

1982 년도 1 학기의 1 차년도 실험 실시의 概要를 보면 實驗科目當 受講人員을 60 명 이내로 제한하고 討論이 필요한 경우 30 명씩으로 分班했으며 講義助敎를 배정하고 敎材는 교수의 자료를 복사하여 사전에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講座의 운영은 중견과 같은 교수의 일방적 강의가 아니라 주어진 主題를 폭 넓은 안목과 深層分析으로 접근하며 討論時間을 많이 갖도록 했다. 성적 평가 방법도 소위 相對評價의 비율을 엄격히 적용치 않고 융통성을 두었다.

이와 같은 강좌에 대한 자체 평가는 수강생들의 의견, 조교들의 의견 및 담당 교수의 평가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受講生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강좌의 必要性, 內容 및 運營方式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의 建議事項은 토론 강화, 강좌 내용의 좀더 나은 체계화, 事前 오리엔테이션, 副敎

材와 참고서의 入手便宜 제공 등이다.

강좌를 도와 주었던 助教들의 의견은 자신들의 참여에 대하여 좋은 教育經驗을 얻었다고 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데 業務量이 과중하고 토론 습관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기가 힘들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擔當教授들은 성과가 매우 컸다고 평가하면서도 문제점으로서 時間不足, 助教訓練의 부족, 학생들의 준비 및 자질 부족, 성적 평가 방법의 경직성 등을 들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와 建議로서는 강좌 운영이 討論中心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수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受講人員을 줄이며 助教의 인원을 늘리고 적절한 訓練을 실시하며, 조교들에게 업무량에 상응하는 報酬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教材는 수시로 작성·보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교재의 준비와 공급을 위한 支援強化를 요망하고 있다. 끝으로 “문제는 앞으로 이들 熱誠教授들의 노력에 합당한 行政的 뒷받침이 있느냐에 따라 그 成敗가 좌우되어서는 안 되게끔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이제와서 보면 앞에서 밝힌 의욕적인 敎養科目 敎改革事業이 그 후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추진될 수 없었던 것은 學園事態와 학내 일부 교수들의 新敎養科目에 대한 회의 등으로 바로 앞에서 지적된 行政的 뒷받침을 계속할 수 없었던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2) 전체 敎科課程上的 位置

1982년 당시의 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총 40여 종류의 교양 과목을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호 관련된 要因으로 인하여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첫째는 일부 학과의 반발이 있었다. ‘第3世界’나 ‘社會主義’나 하는 제목이 붙은 교과목이 개발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과목이 ‘自己學科’의 관련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학과에서 專攻科目의 精해라 해서 반발하게 되었다. 결국 ‘第3世界’ 과목은 교양 과목으로 개설치 않기로 하였으며 ‘社會主義’ 과목은 교양 과목도 아니고 전공 과목도 아닌 ‘一般選擇科目’으로 분류해 버리게 되었다.

둘째는 新規科目 開發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豫算上的 限界를 느끼게 되었다. 1개 과목당 50~100만 원의 개발 비용이 든다고 볼 때 1년에 10개 과목만을 개발하는 데도 500~1,000만 원이 소요된다. 이 외에도 신규 교양 과목의 강좌에는 助教를 배치하고 敎材作成費를 따로 지원해야 되는 등 비용이 든다.

세째로 소위 ‘敎養教育 核心 敎科課程’에 포함시킬 교과목의 수 또는 범위를 당초 40개로 잡았으나 그것이 불충분할 때 어디까지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基礎課程의 학생수를 5,000명으로 잡고 그들이 人文·社會·自然의 세 분야에서 각각 1개 과목씩을 수강해야 한다고 할 때 소요되는 延人員 科目數는 15,000명이다. 1개 과목당 受講人員을 60명 이내로 제한하는 方針을 고수할 때 모든 학생이 核心敎科를 소기의 취지를 살려 수강하게 하려면 15,000/60, 즉 약 250종류 또는 250강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학생 1인당 약 9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 강좌의 종류는 거의 1,000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과목을 개발하는데 드는 開發費는 차지하고라도 조교나 교재 등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餘力이 없는 것이다.

네째로는 新敎養科目(核心科目)에 대한 교수들의 理解 내지 呼應이 미흡했다.

따라서 敎務處에서는 방침을 바꾸어 신규 교양 과목의 개발을 교무처와 일부 ‘熱誠教授’들만의 노력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울大 敎務行政體系의 公式的 構成員을 참여시키기로 하였으나 그것도 별로 성과가 없었다. 이렇듯 성과가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學事行政을 이끌어 갈 主幹勢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교수들은 學內補職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임기도 짧아서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가 힘들고 日常化된 업무나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중저직 變革만을 自招하는지도 모른다.

1983년에는 1985年版 교과 과정 冊子의 修正·補完作業이 시작되었는데 각종 위원회에서는 교양 과목의 再分類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實驗敎科目’을 <표 1>과 같이 기존 분류

(表 1) 新敎養科目의 分類(서울大學校 1985 년도판 敎과과정)

敎科目區分	開發된 敎科目名	備 考
敎養敎科目		
敎養必須科目	韓國人の 歴史意識	韓國史와 상호대체 인정
外國語	近代 韓國의 民族主義	韓國史와 상호대체 인정
人文科學	現代 美國의 社會와 文化	英語 I 과 상호대체 인정
	英美成長期의 文學	英語 II 와 상호대체 인정
	韓國 近代文學의 理解	(상호대체 반대 의견)
	現代의 哲學의 理解	(상호대체 반대 의견)
	美術의 理解	(상호대체할 과목 없음)
	音樂의 理解	(상호대체할 과목 없음)
社會科學	戰爭과 平和	(상호대체 반대 의견)
	經濟的 自由와 平等	(상호대체 반대 의견)
	女性과 社會	(상호대체 반대 의견)
自然科學(自然系學生)	<없 음>	
自然科學 (非自然系學生)	現代科學의 構造	(상호대체 반대 의견)
軍事學系敎科目	科學과 環境	(상호대체 반대 의견)
一般選擇科目	<없 음>	
	理代 社會主義의 分析	교양과목으로 인정하는 것
	(이상 14 개 敎과목)	반대

에 따라 수록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新敎養科目을 기존 분류 체계에 따라 공식적인 '교과과정' 표에 수록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학과가 있었고, 일단 기존 체계에 따르기로 했으면 신 교양 과목은 일부 기존 概論科目과의 代替受講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표 1>과 같이 분류·수록하게 되었는데 어떤 것은 종전의 교양 과목과 대체 인정되고 어떤 것은 그러한 認定이 없어서 敎養選擇科目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아예 교양 과목으로 분류되지도 못하고 '一般選擇科目'으로 분류되기도 하여 일관성이 없게 되었다. 그것이 實情이었던 것이다.

2) 問題點 分析

1979년에 問題가 제기되고 1981년부터 그 싹마리가 풀리기 시작한 서울대 기초 과정의 敎養敎科課程 改革은 교양 과목을 主題中心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實證을 보여 주었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서 文敎部의 政策事業으로 수용될 만큼 성과가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일부 소수의 '유능'하고 '熱誠的'이며 刷新的인 교수들의 자극·충동·지원이나 誘導에 의하여 敎

務當局者가 추종하거나 지원하는 것만으로서 그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이와 같은 노력을 制度的으로 안정시키고 확산·정착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基礎敎養課程의 운영 체계의 문제로 귀결된다.

서울대가 綜合化 이전에 文理科大學과 敎養課程部를 병존시킨 것도 奇現象이지만, 종합화와 더불어 두 개의 조직을 동시에 해체시켜 버린 것도 특이한 일이다. 물론 企劃 당사자들은 종전의 두 조직이 담당하던 기능을 人文大學, 社會科學大學 그리고 自然科學大學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구상했고, 실제로도 현재 이들 대학이 기초 과정 강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學務管理는 敎務處에 集權化되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集權化된 體制와 分權化된 체제에는 각기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서울대 基礎課程敎育의 운영을 單科大學 수준으로 分權化시키지 않고 종합화와 더불어 大學本部에 集權화시켜 버린 때에는 그 나름의 속사정도 있었지만, 기초 과정을 全校的으로 統合管理하는 데서 오는 신속성과 一員性의 유지 등이 가져오는 利點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解體·改編을 통하여 상실하게 된 것은 기초 과정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凝集力 있는 지도 집단이다. 즉 서울대의 기초 과정, 전공 과정 그리고 대학원 과정이라고 하는 三層構造 속에서 學事管理, 教授陣, 學生所屬 그리고 敎科課程의 주관 등이 일치하거나 통합·조정되는 단계는 대학 2, 3, 4 학년(醫·齒대는 1~4 학년)을 지칭하는 專攻課程뿐이다. 그래서 각 단과 대학의 學長, 學長補, 學科長, 敎授 및 學生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전공 과정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견하에서는 敎務處가 一方的으로 교과 과정을 부과하는 쉬어도 교수들의 合意나 協助를 구하기가 어렵고 학생을 學問的으로 지도할 능력이 없으며 교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5. 基礎敎養敎育의 改善方案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基礎課程의 핵심적인 敎養敎科目的의 改編方向은 잘 정립되었으며, 교과목의 實驗的 開設에 있어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그것을 확산·정착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초 과정의 運營體制가 지닌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 과정의 敎育計劃과 敎育擔當組織이 괴리되어 있는 것이다. 敎務處가 '敎務'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學事管理部署이지 敎授組織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의 代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대에만 限定된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간단하게 언급해 두겠다.

第1案은 基礎課程敎育을 전담할 單科大學水準의 敎育 기구로서 가장 '基礎課程部'를 신설하는 案이다. 部에 部長, 部長補, 敎授陣 및 行政室을 두고 지금까지 교무처에서 관장하던 사무의 일부를 이관받게 한다. 이 안은 그 성격이 가장 뚜렷하여 기초 과정 敎育의 목적을 살리기에 가장 理想的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第2案은 각 단과 대학에 소관 기초 과정 학생의 敎育을 완전히 분담시키는 分權化案이다.

이 안에서는 단과 대학별로 자신들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그 기초 과정 학생들을 伸縮性 있는 프로그램으로 敎育하여 基礎課程과 專攻敎育間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大學別 學科別 閉鎖性이 되살아 나서 기초 과정 敎育이 소홀해질 염려가 크다.

第3案은 위 2개 案의 折衷案이다. 즉 별도의 敎授陣이 없는 하나의 종합적 조정 기구로서 基礎課程部를 신설하고 部長과 部長補 등을 두되, 실제 敎育은 각 單科大學別로 실시하는 안이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고도의 行政管理能力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기는 복잡한 방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實現性이 크며 또한 漸進的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체제이다.

따라서 이상 3개 안 중에서 마지막의 折衷案이 가장 현실적 妥當性이 있는 改善案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상의 事例分析和 改善案은 오늘날 우리 대학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制約 속에서 약간의 改善을 기대하는 시도이지, 그것이 대학의 問題를 전면적으로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룬 서울대에 국한된 事例와 問題들을 우리나라의 대학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一般化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지 남에게 내보일 만한 '成功事例'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부록 1〉 金璟東外 3人 「大學 基礎課程의 敎養敎育 改善을 위한 研究」(1981.4.)에 제안된 關心領域 及 例示의 敎科目

영역 I : 韓國史와 國民倫理	
韓國史	國民倫理
영역 II : 國語와 作文	
國語	作文
영역 III : 體育과 敎練	
體育	敎練
영역 IV : 外國語와 外國文化	
英語 I, II	佛語 I, II
獨語 I, II	中國語 I, II
外國의 文化 I (英語圈)	外國의 文化 II (佛語圈)

外國의 文化 Ⅲ(獨語圈)	外國의 文化Ⅳ(中國語圈)	人文學과 社會科學	歷史學的 說明
外國의 文化 V(其他言語圈)		言語와 論理	數學의 構造
영역 V : 文學과 藝術		個人과 國家	正義의 理論
韓國의 古典	東洋의 古典	價値와 正常性	分析哲學入門
西洋의 古典	詩의 世界	삶과 삶과 教育	컴퓨터科學
小說의 世界	戲曲과 演劇	영역 Ⅷ : 科學	
文學과 社會	現代文學의 傾向	通年科學	
人間과 言語	藝術이란 무엇인가?	數學 I, II	物理學 및 實驗 I, II
美術의 理解	音樂의 理解	化學 및 實驗 I, II	生物學 및 實驗 I, II
創作위크샷		地球科學 및 實驗 I, II	
영역 VI : 歷史와 社會		學期科學	
韓國의 傳統과 社會科學	近代化의 歷史的 展開	統計學 및 實驗	物理學 및 實驗
歷史와 엘리트	民主主義의 源流	化學 및 實驗	生物學 및 實驗
새로운 世界秩序의 展開	戰爭과 平和	地球科學 및 實驗	
經濟成長과 社會變動	大衆社會와 大衆文化	(이하 非自然系列 對象)	
都市와 生活環境	現代人의 不安	現代科學의 諸問題	
現代社會와 宗教	現代人의 組織生活	現代物理學의 意味와 背景	科學과 社會
法과 社會秩序	文化와 人間發達	進化, 遺傳 및 社會問題	近代科學의 起源
女性과 社會	社會問題와 社會福祉	科學史	
영역 VII : 分析的 思考		宇宙와 人間	
社會科學의 論理	科學的 法則의 概念	教授세미나	